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또 다르게 보면 이 땅은 어둠이었다. 캄캄한 어둠. 어둠이 뭐예요? 죽음과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심판 안에 있는 것이 어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람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다 그랬어요. 이 어둠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세 가지를 가르쳐 준대요. 첫째, 죄가 무엇인지. 둘째,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지. 셋째,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이렇게 늙고 병들고 가난하고 싸우고 다투고 죄가 있고 이렇게 안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행복하고 영원히 살고 부족함이 없도록 완전한 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지금 받았고 또 영원히 지옥의 불 유향불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저주 가운데, 심판 아래에 있었을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내가 알고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전도가 주저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진짜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확신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확신하면 우리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이웃과 사귀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줄까? 그래서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원래 바울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안 믿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의 명단을 받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어마어마한 빛과 소리를 듣고 거꾸러진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니라.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다메섹에 들어가자마자 복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죽이려 하니깐 광주

리에 달아가지고 내려온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봤습니다. 그리고 쫓겨가 저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을 바나바가 시켜서 오게 해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이 아시아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았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때에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갔더니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준비해 두셔서 빌립보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야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할 때 사람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야손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복음을 전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또 복음이 에베소와 그 지역, 유럽에 증거 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이 본문을 주고 갔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사역하면서 정말 이 본문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역을 다 마치고 아론 목사가님 찾아가셨어요. 찾아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보통 아프리카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요구하는데 이분은 돈은 필요 없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카메룬이라는 지역은 영어권이 있고 불어권이 있는데 공식 언어는 불어를 쓰며 몇 년 전에 내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아론 목사가님 정치로도 경제로도 문화로도 섞일 수 없는 이런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봤다고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제가 거기 가서 여러분에게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분을 모신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이 전했어요. 그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왜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야 하는지, 왜 죽었다가 또다시 살아나셔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는님 밤새도록 회개하고 울었대요. 우리가 지금까지 묵회하면서 뭘 전했던가 하면

서요. 아프리카에서는 인기 복음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그리고 또 예언해 준다면서 뭘 하고 굉장히 권위적으로 이렇게 현금을 내라 하고 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너무 희미한데 목사님은 와서 우리에게 예수만 전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기를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와서 우리를 꼭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다 귀한 현금을 드려서 그거 모아서 제가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1년에 몇 번 오라 하면 어쩔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와달라고 해서 내년 11월 초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가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물질을 바라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아프리카에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 아론 목사님이라는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거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니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이었어요. 제 평생 기도 제목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이런 사람을 만날까 너무 신기했고 만나는 과정과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거기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심을 그들이 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르완다로 넘어왔는데 르완다는 정부가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려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제가 선교사님 보고 그러면 예배당 중심으로 하지 말고 셀 중심으로 해라. 사무실도 좋고 지역도 좋고 학교도 좋고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꼭 오시라 해서 갔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암송하는 거 아마 여러 번 보여줬을 거예요. 어떤 교회는 갔을 때 가득 모인 것이 한 7~80명밖에 안 돼요. 교회에서 못 모이니까 어떨 때는 학교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암송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예수를 믿어요. 마지막 예배 드리는 교회가 르완다의 어떤 교회인데 우리 같으면 이제 구 어떤 구에 대표적으로 교회를 하나씩만 남겨둬요. 그 하나씩 남겨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는데 한 800명쯤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예배를 3시간 드리는데 파트마다 나와서 다 찬양을 하고 나올 때마다 다 춤을 추고 대단하더라고요. 교회가 다 닫히고 거기 대표 교회가 하나 열렸으니깐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이제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때 옆에 있던 선교사님이 어떤 목

사님 벡타이를 가리키며 “목사님, 저 벡타이 제가 드린 겁니다.” 이래요. 그래서 아 드려도 되는구나 싶어서 그 담임 목사님이 키가 저만 하고 굉장히 귀엽게 생겼고 공부도 많이 한 박사인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혹시 이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 제가 입었던 옷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 얘기를 꺼냈지요. “목사님, 이거 쓰던 건데 벡타이 이거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벡타이하고 윗도리 드리고 집에 가서 바지와 와이셔츠를 벗어 가지고 전달해 드리라 하고 왔어요. 그래서 딱 거 입고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가 시골이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또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적이어서 저는 정말 피곤했지만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우리가 뭐 바울 같고 마게도냐에 가는 건 아니지요. 단지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제목만 가지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선교지도 많이 사용하시고 그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제가 1년 있다가 간다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한번 나온대요. 나와서 4일 있다가 간대요. 4일 있다가 얼굴 보고 조금 대화하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아프리카 가려면 비행기 티켓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3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쪽에서는 300만 원이면 집 한 채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나오는데 어떻게 4일 있다가 가려고 그랬냐 했더니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드리고 바로 간대요. 그러면 안 되고 가서 수원 명성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두 군데 들리고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6월경 올 것 같아요. 그때 더 자세히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릴 겁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을 복음 전하는 데에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영육의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